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박은우, 편집인 : 이성우
 편집 : 농생대 홍보·편집위원회
 (김진모·배정환·이종용·임정빈·전창후)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7월 기공

■ 지난 3월 실시계획인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6월 중 공사착공이 예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기공식 일정이 확정되었다. 기공식은 7월 10일, 사업 부지인 강원도 평창군 신리 연구단지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우리나라 첨단 바이오 연구 및 녹색성장을 책임질 연구단지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연구단지는 평창의 청정 자연, 도와 평창군의 과감한 지원, 서울대의 우수한 연구진이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연구단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또한 춘천의 바이오산업, 홍천의 나노한방바이오, 강릉의 해양바이오, 정선의 바이오코스메틱 밸리 등과 연계하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사업개요 |

•명칭: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대 •사업규모 - 총 부지면적: 2,767,577㎡ - 건물 연면적: 86,372㎡	•총 사업비: 229,041백만원 (국가 및 지자체 재원 부담) - 서울대 1,394억원, 강원도 597억원, 평창군 299억원 •사업기간: 2006년~2011년 •주요시설: 연구시설/교육행정시설, 농/목장시설, 주거/근린시설, 산학협력단지
---	--



차기 학장, 박은우 現학장 연임

■ 차기 농생대 학장을 현 학장인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월 25일 치러진 신입투표를 통해 농생대 재직 교수 과반의 신임을 얻어 연임하게 된 박은우 학장은 현 임기에 이어, 2009년 7월 27일 2년 임기의 제21대 농생대 학장에 취임하게 된다.

2면 농생대 헤드라인
 농생대 동창회, 장학금 출연

1면 _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2면 _ 농생대 동창회, 장학금 출연
 3면 _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
 4면 _ 한농대, 농협대와 자매결연
 5면 _ 농생대 인사이드
 6면 _ 동문탐방
 7면 _ 교수 칼럼
 8면 _ 농생대 사람들

농생대 동창회, 상록장학금 출연 목운문화재단, 상록대상 시상금 추가 지원



왼쪽부터 농생대 박은우 박장, 동창회 한인규 회장



외국인 장학생들과 함께

■ 3월 6일 농생대 대회의실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농생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창회의 장학금 지급 협약식과 상록대상 시상금에 대한 목운문화재단의 지원 협약식이 함께 열렸다.

농생대 동창회(회장 한인규 명예교수)와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이사장 박은우 농생대 학장)은 이날 ‘상록장학금’ 지급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농생대 동창회는 교육연구재단에 2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하고 교육연구재단에서는 이 기금을 운용하여 매년 10명 이내의 재학생에게 상록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2억 원의 기금은 지난 1986년부터 2003년까지 동창회가 조성해온 동창회 발전기금 전액이다. 한인규 회장은 출연사를 통해 “모교 재학생들에

게 선배들의 정을 나누어 준다는 뜻에서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재단법인 목운문화재단(이사장 한인규 명예교수)은 교육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시상금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상록대상은 1990년 한인규 교수가 출연한 1억 원의 기금에 대한 과실금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시상금을 1천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날에는 목운문화재단이 지급하는 서울대학교 외국인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식도 개최되어 3명의 외국인 학생에게 2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박관화 명예교수, 제8회 한국공학상 수상

■ 농생명공학부의 박관화 명예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서 시상하는 제8회 한국공학상을 수상하였다. 박관화 교수는 기능성 천연물 및 식품소재합성 탄수화물 효소를 개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3월 18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공학상은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세계 정상수준의 연구성과를 이룩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기, 기계, 화학, 토목 등 공학분야에서 총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3군(화공, 식품, 고분자, 섬유, 생물공학, 공업화학 등 관련분야) 수상자인 박관화 교수는 식품공학에 효소를 이용하는 분야를 독자적으로 개척하여 새로운 탄수화물 효소를 개발함으로써 기능성천연물의 이용도를 높이고 기능성 맞춤형 전분 및 탄수화물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식품 및 생물공학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Karlsruhe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교수는 1976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2009년 2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육과 연구에 매진했다. 박 교수가 개발한 효소 및 탄수화물 소재는 국내의 식품산업계에는 물론 세계15개국 이상에 분양되었다.



제8회 한국공학상 수상자(가운데 박관화 교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유상렬·이용환·이학래 교수 선정



유상렬 교수



이학래 교수



이용환 교수

■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유상렬 교수, 이용환 교수(이상 농생명공학부)와 이학래 교수(산림과학부)가 선정되었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이룬 중견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약연구와 핵심연구로 연구 유형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약연구는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중,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영역에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대 지원규모는 3억, 최대 지원기간은 5년이다. 핵심연구는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및 협동연구(2~3인)지원으로 우수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지원규모는 1.5억, 최대 지원기간은 3년이다. 유상렬 교수와 이용환 교수는 도약연구에, 이학래 교수는 핵심 연구 유형에 선정되었다. 유상렬 교수가 연구할 과제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병원세균 제어와 항생제

대체’이다.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박테리오파지와 phage product의 효용성 입증을 통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항생제의 남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항생제 내성균 출현의 감소와 내성균 문제의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용환 교수는 ‘T-DNA 삽입형 질전환체 분석을 통한 베타열병균 병원성 유전자 특성 규명’을 과제로, 베타열병균의 병원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유전체 수준에서 찾아내고 그 기능을 규명하여 베타열병균의 병원성을 시스템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한다. 핵심연구 유형의 이학래 교수는 ‘커튼 코팅기술에 대한 표면화학적 및 유변학적 연구’라는 과제로 연구한다.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 “여러분의 상상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끌어올리세요.” 3월 25일 ‘Creativeness-창조적인 플레이어가 되자’를 주제로 열린 CALS 특강의 강연자로 나선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참석 학생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민승규 차관은 우리 농업 현실과 관련해 선진국 농업을 강자로 규정하고 다윗(약자)이 골리앗(강자)을 이기는 데는 남들과 다른 신념과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전략을 세우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식이 생기면 모르는 것도 생긴다”면서 “호기심이 한 단계 올라가면 창의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 공연 ‘난타’를 기획해 국내 최장·최다 공연 기록을 세우고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한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가 농생대를 찾았다. 5월 20일 “NANTA 기획에서 세계 진출까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송 대표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가브랜드는 40위권 안팎에 불과하다”며 냉정하게 세계 속의 한국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송승환 대표는 “아시아에서 한국 브랜드가 인정을 받는 것은 겨울연가와 동방신기 등 문화산업 영향이 크다”며 “다양한 산업에 문화적인 마케팅을 접목하는 것이 시장 장악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농생대-한농대-농협대, 자매결연



왼쪽부터 농협대학 박해상 총장, 한국농업대학 김양식 학장, 농생대 박은우 학장

■ 농생대가 농업 관련 특수대학들과 손잡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박은우)과 한국농업대학(학장 김양식)과 농협대학(총장 박해상)은 4월 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국농업대학 강당에서 자매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 학생과 교수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세 대학은 학생 및 교수 교류 등을 통해 첨단농생명과학 교육, 학생들의 현장기술교육, 농업 지도자 양성 교육 등 각 대학의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 농생대는 첨단농생명과학 심화교육을, 한국농업대는 농산업 현장기술교육을, 농협대학은 농산업 지도자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박은우 학장은 “서울대의 경우 예전에 비해 약해진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농업의 첨단기술과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다른 두 대학과 농촌 현장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자매결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진화 교수,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선출



정진화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한국여성경제학회의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월 1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 11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정 교수는 3월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한국여성경제학회는 여성경제학자들의 학술적,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 여성경제학자들의 학술적 성과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장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진화 교수는 학회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경제학회가 여성경제학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과 인적 교류의 장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여성 및 경제 전반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교육연구재단 임원 간담회 개최



■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임원 간담회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간 남부학술림에서 개최되었다.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8쌍의 임원 내외를 비롯해 모두 18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 학장회, 남부학술림 방문



■ 서울대 학장회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박 2일 간 남부학술림에서 학장회의를 개최했다.

학장회는 서울대의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총장, 부총장과 단과대학장, 각 처·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바이오-나노 융합기술연구회 제4회 학술심포지엄

그린바이오-나노 융합기술연구회 2009년 정기총회 및 제4회 학술심포지엄이 2월 27일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이었던 박영환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뒤를 이어 조성인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기총회에 이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후원으로 “Nano Food and Safety”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나노식품의 국가별 정의, 나노식품의 국내외 연구동향과 산업화 사례, 나노식품의 안전성 평가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발표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일성장학금 수여식

3월 2일 일성장학금 수여식이 농생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일성장학금은 정윤환 동문(입학과 56년 입학)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날 산림환경학전공 학생 7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장학금 수여식 후에는 산림과학부에 장학금을 출연한 정윤환 동문, 박순조 동문(입학과 55년 입학), 곽동헌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가 있었다.

농생대 협력업체 발전기금 출연

농생대에 실험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한빛(대표 이철영)에서 전공의 연구 지원비로 일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3월 11일 농생대를 방문하여 박은우 학장에게 기금을 전달한 이철영 대표는 농생대와의 인연으로 얻은 수익을 일부 환원하는 것뿐이라며 적은 액수라 오히려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학술강연회 개최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다. 4월 17일에는 조선대 환경공학과 김시욱 교수(제목: Production indigo derivatives from recombinant E. coli cells harboring flavin-containing monooxygenase gene of a novel marine methylotrophic bacterium, *Methylophaga aminisulfidivorans* MPT (type strain)), 22일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조용진 박사(제목: 식품나노기술의 연구현황과 전망), 29일에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제목: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in fat tissue of obesity), 5월 6일에는 서울대 치과대학 이창희 교수(제목: Critical therapeutic targets and drug development for bone-resorbing diseases)가 강연했다.

농학과 총동문회 개최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은 지난 4월 25일 수원 창업지원센터(구 농생대 본관)에서 농학과 총동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한 동문들에 대한 이정한 동문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동문소식 및 결산, 감사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서 81학번 송성도 동문이 자랑스러운 농학인상을 받았고 그동안 동창회장으로 수고한 이정한 동문(65학번)에 이어 최동규 동문(66학번)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재학생을 위한 1:1 진로·취업 상담

졸업 후 진로 설계 및 취업을 고민하는 농생대 재학생들을 위해 진로상담 및 취업컨설팅이 제공된다. 농생대 입학진로정보실에서는 헤드헌터 겸 커리어 전문가인 강인주 한피컨설팅 이사를 초청하여 진로목표의 수립 상담에서부터 이력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구직기술 관련 컨설팅까지 폭넓은 내용의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며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 (02)880-4667 입학진로정보실



그린바이오-나노 융합기술연구회



일성장학금 수여식



(주)한빛 발전기금 출연



농학과 총동문회

농생대 동창회, 2009년 상록의 날 행사 개최



5월 16일 농생대 201동에서 2009년 상록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특히 상록의 날 행사에 앞서 ‘상록인 명예의 전당’에 26명의 헌정자를 모시는 헌정식을 개최하고 참석한 동문들이 함께 명예의 전당을 둘러 보며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했다. ‘제7회 자랑스러운 상록인대상’의 시상 등과 함께 진행된 상록의 날 행사에 이어, ‘75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사은회 및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국악 공연, 농대 추억의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일성화학 대표이사 정윤희 동문



지난 3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정윤희 동문(임학 56)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에 출연한 장학 기금으로 운용되는 ‘일성장학금’ 수여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날 정윤희 동문은 모교를 찾아 장학생들을 격려하고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정윤희 동문은 아낌없는 나눔의 실천으로 유명하다. ‘기부’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9년, 정 동문은 인천 남구 소재의 인천보육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농생대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모교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2002년부터 산림과학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성장학금을 통해 지금까지 38명의 학생들이 정윤희 동문과 인연을 맺고 있다.

정 동문의 모교 사랑은 장학금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이사, 임학과 동창 회장 등을 맡아 직접 모교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 동문이 나눔을 실천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과거 자신이 지원한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감사 인사를 전할 때라고 한다. 또한 모교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동문은 어릴 적에는 아버님의 병환으로 주경야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는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휴일을 모르고 뛰었다고 한다.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으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 같다고 정 동문은 평가했다. 그의 인생 최대 목표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윤희 동문은 “앞으로 녹색산업 중심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 농생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농생대와 농생대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교와 후배를 위한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조인스닷컴 대표이사 하지윤 동문



조인스닷컴에는 아시아 첫 인터넷신문, 월간 방문자수 일간지 부문 1위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한국의 언론사닷컴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인스닷컴을 이끄는 사람은 2006년 40대 젊은 기수로 대표가 된 하지윤 동문(농경제 81)이다.

하지윤 동문은 대학원 재학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도 언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88년 중앙일보에서 중앙경제신문을 창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언론인이 되어 실물 경제를 배우고 보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임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 동문은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대학 시절 폭넓은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은 것이 언론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성공 비결을 밝혔다.

1981년 대학 입학 당시, 하지윤 동문은 농경제학과와 함께 서울 사대에 합격했다고 한다. 진로를 고민하던 하 동문은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는 농경제학과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농생대로의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수원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선후배들과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캠퍼스 뒤편 과수원에서 술 한잔하던 기억이 새롭다며 대학 시절을 추억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대표적 미디어 기업을 이끌고 있는 하지윤 동문은 “포털에는 월 새 없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등장한다”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킬러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에는 반드시 나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두박두박 한걸음씩 걷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정보통신 전문기자로서 IT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하지윤 동문이 농생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한국경제 2009년 3월 27일자〉

[기고]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돼야 - 식물생산과학부 이변우 교수

[요약] 최근 지구촌 곳곳은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자연적인 농어업재해를 지원해왔지만 주로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이 주류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선진국들은 자연재해로 입은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사과 배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과수에 대해 전국 사업을,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벼를 포함해 5개 품목이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단일 품목으로는 농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의 시범사업 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의 큰 획을 긋는 것이다.

농업생산력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농협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에 힘써 주길 바란다. 아울러 농업인들도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보 2009년 4월 29일자〉

[기고] 유엔 인간정주 과제와 한국의 역할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김귀곤 교수

[요약] ‘보다 나은 도시 미래를 위한 유엔인간정주’라는 주제로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 인간정주(UN - HABITAT) 제22차 집행이사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04개국 대표가 참가해 주택금융 체계와 기후변화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장 박상규 국토해양부 실장은 총회 대표연설과 사무총장 면담을 추진했고, 대표단으로 하여금 각종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와 발표를 주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성과 활발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회의의 특별 의제인 ‘세계적 금융위기 및 기후변화에 직면한 적정 주택재원 등 공급체계 마련’에 대한 다이얼로그 세션에서 한국 대표단은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도구와 시행 메커니즘 그리고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등 녹색성장을 국가지적 비전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점차 증가하는 유엔 인간정주의 위상과 확대되는 기능에 부응해 이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이 파워를 기술과 인력의 수축을 위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국일보 2009년 5월 7일자〉

[시론] 물질과 흙의 중요성 - 농생명공학부 노희명 교수

[요약] 시내 곳곳 인도의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대신 녹색 탄성포장재를 덮은 곳이 많다. 무릎을 다친 아내에게 폭신평신했던 탄성이 고맙지만, 갈 곳을 잃은 물줄기를 생각하면 삭막한 포장재가 야속하기만 하다. 물은 우리의 땅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물이다. 시멘트나 탄성포장재 같은 피복재로 도시를 온통 덮으면서 물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온실가스 문제도 비슷하다. 물과 온실가스 문제는 이들이 오고 가는 자연순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근본에는 흙과 토양이 이들의 순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매개한다는 섭리가 있다. 토양유기물인 흙은 온실가스 주성분인 탄소량을 2만4,000억 톤 함유하고 있다. 이는 대기 중의 7,500억 톤, 식물이 지닌 5,000억 톤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토양은 대기와 끊임없이 탄소를 교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는 18~21일 서울에서 전세계 대도시 관계자들이 모여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및 기후변화 박람회”를 연다. 물과 흙,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이 주제로 오를 예정이다. 물이 제 갈 길을 터주고, 흙에게 제 할 일을 맡기는 것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진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일보 2009년 3월 18일자〉

[시론] 다시 나무 땀감을 쏜다니 - 산림과학부 이학래 교수

[요약] 최근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는 청정자원인 산림자원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호와 육성 위주의 산림자원관리 정책을 순환임업과 지속적인 자원이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과 별채를 늘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펠릿보일러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뿐 아니라 산촌 지역 활성화나 농산촌지역의 고용확대와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산림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고 변화가 산림을 가장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럽다.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목재를 재료의 형태로 더 많이 사용한다면 탄소흡수원 또는 탄소고정원으로 목재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다. 목재를 고급 가구나 주택 내장재, 신문용지나 각종 서적을 만드는 종이 등 재료의 형태로 활용한다면 목재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또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재활용까지 한 후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폐기할 수 있다. 오래 사용한 다음 폐기할 경우에도 목재나 종이는 고압계도 스스로의 에너지 가치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에 이때 에너지원으로 활용해도 같은 에너지를 내는 소중한 자원이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했다고 해서 일순간 많은 양의 바이오에너지가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는 산림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구가,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의 산림자원 활용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면 지난 60년 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성공시킨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를 연기와 함께 날려버릴지 모른다. 좋은 목재는 그에 알맞게 먼저 골라 쓰는 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

〈중앙일보 2009년 4월 8일자〉

[중앙시평] 산업 재편과 4대 강 살리기 -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정재 교수

[요약] 삼황(三皇)과 오제(五帝)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갔던 한족은 요 임금이 이르러서야 나라 꼴을 갖추게 됐다. 요 임금은 착하고 슬기로운 순을 뽑아 정권을 넘겨줬다. 순 임금은 인륜을 바로잡고, 산업을 장려했지만 황하의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지 못한 게 걸렸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집안의 우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기대했던 대로 우 임금은 하천을 따라 땅을 구주(九州)로 나눈 뒤 필요한 곳에 제방을 쌓아 구택(九澤)을 만들어 강을 살리고, 구도(九道)를 건설해 서로 소통하게 했다. 구주가 소통하면서 나라는 바르게 다스려졌고,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치자(治者)의 근본 도리가 됐다.

‘4대 강 살리기’에 열매가 많다. 강바닥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강에서 세제 거품과 스티로폼 조각을 없애면, 강가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4대 강 살리기가 하천 정비에 치중해 있어 목표포 삼는 일자리 창출과 공해 방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또 과거처럼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통일성을 잃고 제 욕심 차리기를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간판 사업인 4대 강 살리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국적 사업이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치수사업이다. 이번 기회에 상류에는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하류에는 공해가 있더라도 부산물 처리가 쉬운 산업을 배치하고,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공해가 심한 산업은 특정 지역에 모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배치함으로써 하천의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새강이 맑아지고 강이 제 얼굴을 찾으면 청결한 자연과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산업시설은 대략 20여 년 주기로 개선했지 않으면 낙후돼 경영이 악화된다고 한다. 산업시설을 리노베이션할 때 상·하류에 있는 산업을 순리에 따라 서로 바꾸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완벽한 임해 단지로 공해 시설을 모아 환경 부담을 줄이면 큰 부담 없이 산업 재편을 이룰 수 있다. 온 세계가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산업 재편의 호기이기도 하다. 이번만큼은 정치인들이 치산치수의 근본을 자각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동문소식]

▶**고영곤 동문**(농경제66)이 3월 GS&J 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소 소장직으로 부임했다.

▶**이병하 동문**(축산학75)이 농협사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어 3월 12일 취임했다.

▶**함태홍 동문**(잠사학70)이 3월 20일 남해화학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조희배 동문**(농학67)이 3월 25일 2년 임기의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제3대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김재우 동문**(농공학69)이 4월 22일 울트라건설의 신입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제주대학교 석좌교수인 **송필순 동문**(농화학54)이 한국인 최초로 광생물학분야 최고 권위의 흰센메달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6월에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수동정]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회장 **이돈구 교수**(산림과학부)는 2월 24일~26일 호암교수회관에서 2010년 제23차 IUFRO 세계총회 준비를 위한 학술위원회(CSC) 및 조직위원회

(CDC) 회의를 IUFRO 본부 합동으로 개최하였다.

▶**이정재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3월 5일 2년 임기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제3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국제 교역 환경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4월 7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농수산포럼 제 89차 정기세미나에 참석하여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생대 박은우 학장과 이무하 교수**(식물생산과학부·한국식품연구원), **조성인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월 15일 출범시킨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되어 농어업 선진화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C40 기후정상회의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귀곤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5월 21일 신라호텔에서 컬럼비아대학과 함께 '도시기후변화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24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개최한 '바이오를 이용한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농생명공학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최양도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식탁 위의 생명공학'이라는 주제로 생명공학 작물의 득과 실, 국내 기술 동향, 유전자 상품화 시대의 도래에 대해 발표했다.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농산물의 생산지 유통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월 20일 출범한 '농협 산지유통 혁신 서포터스'의 대표를 맡았다.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녹색관광 국제 심포지엄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인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했다.

▶(사)전진한국정책연구원이 5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한 **이우신 교수**(산림과학부)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우리나라의 하구 지역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일 뿐 아니라 겨울철새의 중요한 월동지"라고 설명하고 "4대강을 비롯한 하천 개발 시에 이러한 조류들이 인간의 간섭과 거리를 둘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사일정

6.12(금) 제1학기 종강
6.13(토)~19(금) 제1학기 보강기간
6.15(월)~8.16(수) 제2학기 복학(귀)원, 복작원, 재입학원 제출
6.20(토) 하기휴가 시작
6.22(월) 하계 계절학기 시작

6.26(금) 제1학기 성적제출 마감
7.11(토)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 마감(1/2선)
7.29(수)~8.4(화) 제2학기 수강신청
7.31(금) 하계 계절학기 종강
8.3(월)~7(금) 제2학기 복수전공, 연합전공 신청

8.7(금) 하계 계절학기 성적제출 마감
8.17(월)~21(금) 제2학기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신청
8.24(월)~28(금) 제2학기 재학생 및 대학원 신입생 등록
8.31(월) 제1학기 종료, 하기휴가 종료
※학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비상할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농학 교육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근대 농학교육과 농산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문을 비롯한 농산업 종사자와 농산업 교육자 및 연구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의 농업생명과학은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농산업의 지식기반과 기술을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생명과학, 환경과학, 경제사회학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융합된 첨단과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농업생명과학의 연구와 교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우리 민족과 나라의 농업생명과학의 요람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과감하고 확고한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 속에서 창의적이며 인본을 중시하는 우수한 농산업 인력과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집중 모금 캠페인 'CALS VISION 2013'을 아낌있게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충은 가치 있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모금 캠페인을 추진하여 세계 우수 대학들을 뛰어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과 지원은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원, 수준 높은 교수 초빙, 연구 인프라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됩니다. 여러분이 성의껏 모아주시는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기부자들은 수준 높은 예우 프로그램으로 모시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발전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연구재단 참여방법
홈페이지 <http://calsfund.snu.ac.kr>
전화 02-880-4510
농협계좌 125-01-072084
(예금주: 교육연구기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물·동물생명공학부 T.880-4868
- 식물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6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0-4847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1
F.873-5426
과실류공통수출연구사업단 T.880-4976
F.873-2056
전자계산실 T.880-4523 F.880-4528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T.880-4826
F.882-7670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창업지원센터 T.(031)294-8526
F.(031)294-8527
식물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880-4510,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